

정부·정치권·의료계 ‘공감대’ 힘 모으자



**더 미룰 수 없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
〈하〉어떻게 가야하나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남도뿐 아니라 반대가 극심한 의료계 협조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되도록 지난 대선 기간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정과제에 ‘필수·공공 의료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가 포함되면서 정부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의정협의회 재가동·의협 설득 우선 지역정치권 단일대오...타 시도 연대도 ‘전남형’ 방점...범도민 운동 목소리

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전남도가 구상하는 ‘전남형 국립 의대’는 의료취약지에 기존 의과대학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해 지역 맞춤형 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과대학은 지역 인재 중심, 의무부무 조건부 면허, 필수의료 특화,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가

이 활동을 멈춘 의정협의회 재가동을 앞두고 의료계 동의를 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현 의대 입학정원(3,058명)의 확대 확정시 ‘전남에 취약지 맞춤형 의대 신설’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전남의사협회와는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취약지에 근무할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의대 인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해외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높일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뉴멕시코 의과대학, 노르웨이 트롬쇠 대학과 캐나다 북온타리오 의대 등 해외 의과대학에서는 시골 지역 환경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중시하고, 이를 토대로 의도적으로 지역 내 보건 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동·서부로 나누어 힘을 모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역정치권도 연대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국립의대 설립을 확정지은 이후 위치를 정하도록 김원이 의원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도 오는 27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국립의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를 비롯해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범희승 전남대 교수 등을 초청, 최대한 중립적이면서도 지역보다는 중앙 지향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원이 의원실과도 조율해 양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일정도 고려 중이다.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민주당·순천6)은 지

난 1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조속히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민선 8기 내에 국립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의회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최우선으로 논의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부재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현재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경북 안동, 경남 창원, 부산 기장, 전북 남원 등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전남 의대 설립을 위해 모두가 사소한 마음은 접어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의 30년 염원이 중앙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정협의회에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오선우 기자



폭염 식히는 클린로드 폭풍 썰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된 25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도심 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생훈 기자

비 그치자 광주·전남 ‘폭염주의보’

“야외활동 자제·농작물 관리 주의”

광주·전남지역에 내리던 비가 멈추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광주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신안 흑산도·홍도와 여수시 거문도·초도를 제외한 전 지역 특보 발령이다. 이날 오후 1시 체감온도는 광양 32.1도, 강진 30.4도, 담양 30.9도, 장성 30.4도, 광주 30.6

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26일 한 차례 소나기가 내려 기온이 내려가지만 당분간 폭염특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멈춘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농작물 병해충, 가축 질병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은행, 여자양궁팀 창단 추진 ‘도쿄 3관왕’ 안산 등 영입 주목

광주은행이 여자양궁팀 창단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 양궁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와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양궁팀 창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계획을 구상 중이다.

창단식과 감독, 선수 5명의 연봉, 영입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은행의 여자양궁팀 창단은 광주여자대학교 소속인 안산(22·여) 선수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인 안산은 지난해 7월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에 이어 2021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양궁월드컵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광주 문산초교와 광주체육중·고교를 거친 안산은 오는 2024년 2월 광주여대를 졸업한 뒤 일반 기업팀 이적을 앞두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

고 싶다는 안산의 의지와 더불어 광주시청 양궁팀이 조레 등 규정으로 인해 선수의 연봉을 1억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기업팀 창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은 광주시 양궁협회 전무이사는 “지난해 한 기업은 안산 선수에게 2억5,000만원의 연봉으로 스카웃을 제의했다”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안 선수의 의지를 반영해 창단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 관계자는 “양궁팀 창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진 것이 맞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를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 등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도팀은 선수 부족 등으로 광주시체육회 등에 육성을 의뢰했다.

광주에는 또 기보배 등이 소속된 광주시청 여자팀과 국가대표 이승윤 중심의 남구정 남자팀이 창단돼 활약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 사립고 답안지 유출 파문 ▶6면 | 기획 / 이병노 담양군수 ▶11면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행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광주광역시동구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

- 일자리 공유 카페**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컨설팅**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 허브 사업** :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